보상받고 친환경 실천하고… 시민참여 실험정책들 눈길

소통플랫폼 '광주온' 설문·시민참여수당 '워크온' 참여하면 보상
'어린이 무상·청소년 반값' 교통비 지원 '지-패스'도 공익실천 유도
강기정 시장 "작은 참여가 모여 지속가능 도시 밑거름… 지속 확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시민들의 일상 속 작은 공익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문조사·친환경교통 이용 등에 참여하면 실질적 보상을 하는 '참여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시민 쌍방향 소통 플랫폼 '광주온(ON)', 오는 9월 새롭게 시작하는 시민참여수당 '워크온(Walk On)', 어린이(6~12세) 무상교통 시대를 연 '지(G)-패스' 등이다.

이는 단순 보상이 아닌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 도시 구현'을 위해서다.

특히 시민 참여를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와 친환경 실천 유도로 지속가능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실질적·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민선 8기 광주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쌍방향 소통 플랫폼 '광주온(ON)'을 선보였다.

광주온은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공감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1회당 700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1만마일리지 이상 모이면 온누리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설문조사는 '시민 정책참여단'에 가입한 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및 자치구별·성별·연령별 분석을 통해 실제 시책 추진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그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이곳이 광주의 새로운 핫플?' 등 그동안 시정 현안 77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41건이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운영하는 '시민참여수당' 참여도 눈길을 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구현을 위한 것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크온(Walk On)'을 통한 일상생활 속 실천활동에 최대 3만 포인트의 보상이 주어진다. 광주시는 시범사업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하면 회당 200포인트, 자전거를 이용하면 200포인트,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10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현금처럼 환산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범운영기간 최대 3만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6~12세) 무상교통, 청소년·어르신 반값교통 시대를 연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인 '광주 지(G)-패스' 정책도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으로 할인하고, 케이(K)-패스와 연계해 청년 30%, 성인 20%, 어르신 50%, 저소득 64%, 2자녀 부모 30%, 3자녀 이상 부모 50%를 환급하고 있다.

어린이(6~12세)와 청소년(13~18세)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생년월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어린이는 100%, 청소년은 50% 할인받는다.

19세 이상 성인은 정부가 운영 중인 '케이(K)-패스'를 사용하면 '지(G)-패스'와 자동으로 연계돼 추가 환급된다. 성인은 은행 등에서 케이(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케이(K)-패스 누리집(korea-pass.kr)에 회원 가입하고,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다.

4인 가구(부모 2명, 대학생 1명, 중고생 1명)를 예로 들면, 가족 모두 월 40회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6만1000원씩 연간 73만2000원을 지원받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호 실천도 가능해 일석이조 효과를 발휘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러한 실험적인 정책들은 단순 혜택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작은 참여가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여름밤, 충장로에 눈이 내린다"

30일 오후 7·8시 두 번째 '8월의 크리스마스' 개최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30일 오후 7시와 8시, 충장로 우체국 사거리 일원에서 두 번째 '눈내리는 날' 행사인 '라온 페스타 - 8월의 크리스마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8월 첫눈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충장로 거리에 시원한 눈이 내려 여름밤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산타 복장의 이벤트 요원과 포토존 등은 행사장을 찾은 가족,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임택 동구청장은 "무더운 여름에 충장로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는 주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충장 상권의 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와 상권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라온 페스타 - 8월의 크리스마스'를 비롯해 충장로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야간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계절·테마별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철수 기자

북구, 청소년의 꿈 '희망의 거리'에서 이룬다

오는 30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서 아이돌 지망생 오디션 개최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30일 '희망의 거리' 일원에서 소속사 연합오디션 '원데이 캐스팅'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원데이 캐스팅'은 미래의 케이팝 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북구에서 처음 추진하는 행사이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재능있는 청소년들과 연예 기획사 간에 만남의 장을 마련해 실제 캐스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북구는 앞서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2005년~2015년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에 나섰으며 총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접수했다.

본행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희망의 거리 청소년 거점센터인 남도향토음식박물관(북구 설죽로 477)에서 진행되며 국내 연예 기획사 20여 곳의 관계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오디션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보컬·댄스·랩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캐스팅을 결정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캐스팅된 청소년은 추후 개별 기획사의 오디션을 거쳐 연습생 계약을 맺게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조성한 희망의 거리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희망의 거리를 거점으로 청소년들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 관내 '골목형 상점가' 82곳 지정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네 상권 8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오는 9월에 관내 골목 경제의 새출발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한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지역 골목 상권 활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구청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을 위한 점포 현황 및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여부 파악 등을 특별 지시했다.

구청 각 부서 및 17개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공무원들은 지정 구역 내 상권에서 조사에 나섰고, 지난 4개월 동안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 밀집 지역인 동네 상권 62곳을 추가로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청에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에 총력을 기울인 이유는 온누리 상품권 유통을 통한 점포 매출 증가 및 정부와 광주시 주관 공모사업 참여 기회 보장으로 시설 현대화까지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역 소비자들이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상시 10% 할인에 환급 등 최대 20%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에 집중된 소비 패턴을 골목형 상점가로 되돌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개월 동안 동네 상권 6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발굴하면서 관내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20곳을 포함해 총 82곳으로 크게 늘었다.

또 골목형 상점가의 온누리 상품권 등록 가맹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골목형 상점가 82곳의 점포수는 총 6,660곳으로, 전체 점포의 21% 가량인 1,337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분간 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각 점포를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있어서 가맹률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는 동네 상권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완료함에 따라 오는 9월 6일 무등시장 군분로 일원에서 글로벌 토요 야시장 개막식 및 남구 전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선포식을 동시에 진행한다.

골목형 상점가 82곳의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골목 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일 기자